

분단 상황에서 중간자적 언어 교과로서의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연구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오현아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I. 들어가며

II. 조선어문 문법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

III.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 비교 분석

IV.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단위 교육 내용 특성 및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V. 나오며

I. 들어가며

조선어 교과는 ‘분단 상황에서의 중간자적 언어 교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혁 개방, 중·수교 이전 중국의 조선어 교육은 실제적으로 북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나 개혁 개방, 중·수교 이후에는 남한어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어’와 ‘남한어’ 사이의 ‘조선어’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 실태 조사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조선어 교육에서의 남한의 국어교육과 북한의 국어교육의 영향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 재외동포의 현지 모국어 교육의 역사적 기술이 가능하며, 현재 ‘남한어’와 ‘북한어’ 사이 ‘조선어’의 중간자적 지정학적 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현아 외, 2016: 79).

이 논문에서는 조선어문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어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국어 문법의 영향 관계를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어문 문법 교과서 관련 선행 연구

분단 상황에서의 국어교육사 차원에서의 선행 연구는 1)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 연구와 2)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오현아 외, 2016: 81-82).

1.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는 언어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해 남한어와 북한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교 연구들이 많은데, 홍종선(1999), 최유숙 외(20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교육 차원에서 국어교육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왕문용·민현식(1999), 홍종선(2009), 김정선(2015) 등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을 검토한 권순희(2014), 북한이탈학생의 국어 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로 배재훈(2012) 등이 있어, 남한어와 북한어를 중심으로 언어 차원에서의 비교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다룬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는 언어 차원에서는 남북한어와 연변어의 어휘 체계를 비교한 이광호(1995), 사전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를 비교한 박갑수(1997),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을 모색한 권재일(2006) 등이 있으나, 언어 교육 차원에서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문

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인식의 문제와 그 교과서들의 단원 배열, 구성 체제, 내용에 대해 비교 대조한 이관규(2016)와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와 복합적 위상을 모국어 교과, 분단 상황에서의 중간자적 언어 교과, 재외동포 현지 교과 차원으로 구분해 학교급별·영역별·위상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오현아 외(2016)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III.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 비교 분석

2장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남한어와 북한어 비교 관련 연구들이 어휘 혹은 단어 차원 연구의 비중이 높으며,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도 어휘 혹은 단어 차원으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인 이관규(2016)와 오현아 외(2016) 모두 남북한 문법 기술의 대표적인 차이로 언급되는 형태 혹은 단어 차원에서의 ‘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관규(2016)에서는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사상적 성격을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으로 구분해, 남한은 도구관과 일체관의 입장을, 북한은 형성관,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도구관의 입장 이면서 언어 일체관과 형성관의 성격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단원 차례를 제시해 비교 대조하고, 단원 구성 체제는 어휘 단원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제시하고, 문법 내용은 ‘토’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현아 외(2016)에서는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을 모국어 교과, 분단 상황에서의 중간자적 언어 교과, 재외동포 현지 교과 차원으로 구분해 학교급별·영역별·위상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중간자적 언어 교과로서의 위상을 문법 영역에서 연구 가능성을 ‘토’를 중심으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남북한어 비교 관련 연구와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 교육 내용과 남북한 문법 교과서 교육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 서지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 서지 사항

	기호	저자	출판년도	이름	출판사	필수/선택	학교급
중국 조선족	㉠	류은종 김광수	2008	조선어문 문법	연변교육 출판사	선택	고급 중학교
남한	㉡	교육인적 자원부	2012	문법	교육인적 자원부	선택	고등 학교
북한	㉢	최준영 서재길 류병설	2001	국어문법1	교육도서 인쇄공장	필수	고등 중학교
				국어문법2			
				국어문법3			

1. 문장 단위 구성 체제 비교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의 문장 관련 단위 구성 체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의 문장 관련 단위 구성 체제

	㉠ (150-197)	㉡ (148-195)	㉢		
			① (42-50, 60-64)	② (47-58)	③ (9-33)
	5장 문장	5 문장			
	제1절 문장과 그 표식 1. 문장의 개념 2. 문장의 기본표식	1. 문장의 성분	17. 문장이란 무엇인가 18. 맞춤법과 그 기본 원칙 19. 맞춤법의 주요 규칙들 연습	20. 알리문, 물음문, 시킴문, 추감문, 느낌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21. 문장 성분이란 무엇이며 문장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2. 단일문과 복합문이란 어떤 문장인가 연습	5. 문장에서의 높낮이선 6. 문장에서의 끊기와 말의 속도 7. 문장의 소리마루와 소리빛갈 연습 8. 토의 바른 쓰기 9. 주어와 술어 10. 보어, 상황어, 규정어 11.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 연습
	제2절 단어결합 1. 단어 결합의 개념 2. 단어 결합의 유형	2. 문장의 짜임	24. 문장 부호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치는가 25. 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표는 어떤 때 치는가		12. 문장 안에서의 단어나 표현들의 어울림 13. 문장 성분의 차례 연습
	제3절 문장성분 1.문장성분과 그 단위 2. 문장 성분의 분류 3. 문장 성분의 표현	3. 문법 요소			
	제4절 문장의 분류 1.이야기 내용에 따른 분류 2.문장구조에 따른 분류 3.상형태에 따른 분류				

위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㉔에서는 문장 단위 교육 내용에서 ㉒, ㉓와는 다른 특징적인 문법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장을 다른 단어나 단어결합들과 구별하여 주는 표식, 진술성, 전달의 억양(㉔, 152쪽)’인 ‘문장의 기본표식’ 개념을 제시해 진술 내용의 심리적계기인 ‘양태성, 전달의 억양’을 강조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둘째, ‘문장 성분’과는 별도로 ‘단어결합’의 개념을 구분해 단어 결합의 개념과 하위 유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단어결합’이란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문법적인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며 문장속에 들어가 문장의 구성단위로 되는(㉔, 155쪽)’ 개념으로, ‘문장 속에서 의미 - 문법적으로 상관적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㉔, 166쪽)’인 ‘문장성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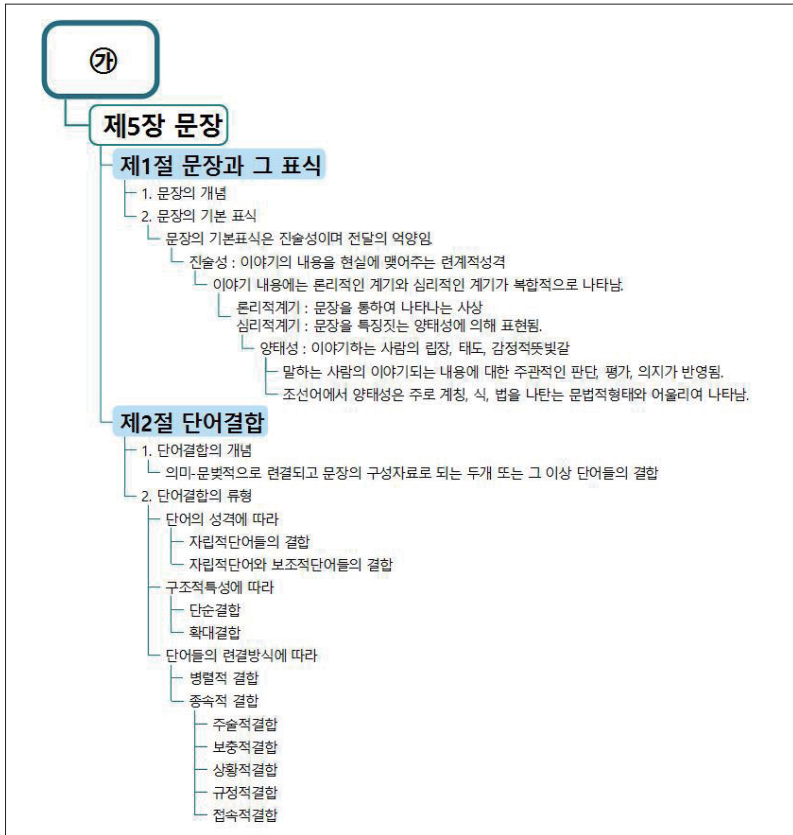
셋째, ‘문장 분류’에서 ‘이야기 목적에 따라’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으로, ‘이야기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긍정문, 부정문, 미정문’으로, 문장 구조에 따라 ‘단일문, 복합문’으로, ‘상형태의 표현에 따라’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문장 단위 문법 지식 설정과 체계 비교

이 절에서는 조선어 문법 교육에서의 남북한의 국어 문법 교육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㉔, ㉒, ㉓의 문장 단위 문법 지식 설정과 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도해하기 위해 ThinkWise PQ premium의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형상화하고자 한다.

먼저 ㉔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1, 2절과 3절, 4절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다음 <그림 1>을 통해 우리는 ㉔의 특징적인 문법 지식 내용으로 앞 절에서 언급했던 ‘문장의 기본표식’과 ‘단어 결합’의 세부 문법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 ㉗의 1-2절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우선 ‘문장의 기본표식’에서 ‘문장의 기본표식은 진술성이며 전달의 역할’이고, ‘진술성’은 ‘이야기의 내용을 현실에 맺어 주는 관계적성격’을 말하며, ‘이야기 내용에는 논리적인 계기와 심리적인 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논리적인 계기’는 문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상’이며, ‘심리적인 계기’는 ‘문장을 특징짓는 양태성의 의해 표현’되며, ‘양태성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립장, 태도, 감정적뜻밖’로 ‘조선어에서 양태성은 주로 계칭, 식, 법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와 어울리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법 교육 내용 체계를 통해 우리는 ㉔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장의 양태성이 ㉗

에서는 주요한 문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 결합’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장 성분’과는 별도로 ‘단어결합’의 개념을 구분해 단어 결합의 개념과 하위 유형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단어결합’이란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문법적인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며 문장속에 들어가 문장의 구성단위로 되는(㉔, 155쪽)’ 개념으로, ‘문장 속에서 의미-문법적으로 상관적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㉔, 166쪽)’인 ‘문장성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결합의 유형을 1) ‘단어의 성격에 따라’ ‘자립적 단어들의 결합, 자립적 단어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으로, 2) ‘구조적특성에 따라’ ‘단순결합, 확대결합’으로, 3) 단어들의 련결방식에 따라 ‘병렬적결합, 종속적결합’으로 구분하고, ‘종속적결합’을 다시 ‘주술적결합, 보충적결합, 상황적결합, 규정적결합, 접속적결합’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여기서 ‘자립적 단어들의 결합’은 단어의 자립성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관형어+주어, 부사어+서술어, 주어+서술어’의 결합이 이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㉔, 158쪽)되고 있으며, ‘자립적 단어와 보조적 단어들의 결합’은 자립적 단어와 보조적으로 쓰이는 불완전명사(또는 단위명사), 보조적 동사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고싶다, -는 길에, -ㄴ 바람에, -고말다, -고있다, -않다, -는거야’ 등이 이에 해당하는 예로 제시(㉔, 158-159쪽)되고 있다. 이는 ㉔에서 ‘보조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존 명사가 포함된 명사절,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 등의 내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대결합’은 ‘세개 이상의 단어들이 두차례 이상의 결합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 단어결합(㉔, 159-160쪽)’으로 제시되고 있어 단어 결합 문법 교육 내용 기술에서 ‘결합관계, 문장의 구조적 분석’ 등 구조주의 언어학의 커다란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병렬적결합’은 ‘련결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련결되는 것을 말하(㉔, 160쪽)’는 것으로 ‘접속 조사, 대등적 연결

어미, 접속부사'에 의한 단어들의 결합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종속적결합'에서 '주술적결합'은 '주술관계', '보충적결합'은 '목술관계, 보술관계', '접속적결합'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인데 반해, '상황적결합, 규정적결합'은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황적결합'은 '주도어가 행동, 상태를 나타내고 의존어가 그것을 수식하여 주는 단어결합(㉗, 164쪽)'으로 형태적으로는 '부사어+서술어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의미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규정적 결합 역시 '주도어가 대상, 현상을 나타내고 의존어가 그 표식, 소속,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결합(㉗, 164쪽)'으로 '관형어+목적어, 관형어+주어, 부사어+주어 명사구, 부사어+목적어 명사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의미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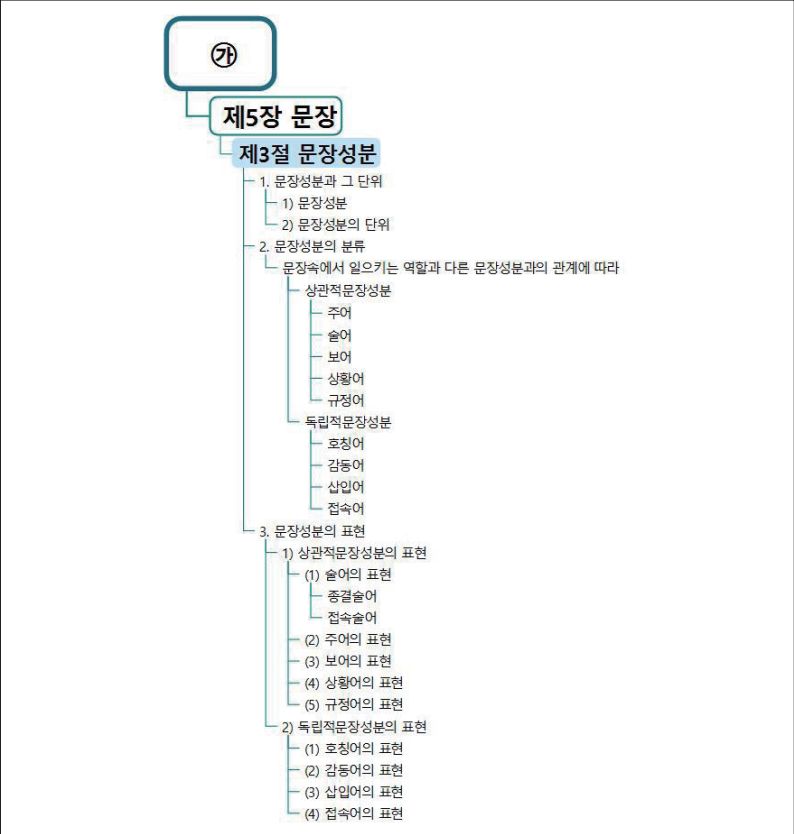
이어서 ㉗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3절을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통해 우리는 ㉗에서 '문장속에서 일으키는 역할과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따라' '상관적문장성분'과 '독립적문장성분'으로 하위 유형을 구분하고 '상관적문장성분'으로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가, '독립적문장성분'으로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 접속어'가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술어'는 종결어미가 결합된 '종결술어'와 연결어미가 결합된 '접속술어'를 구분하고 있어, 어미 유형과 서술어 상관관계에 대한 잠재적인 문법 교육 내용이 전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어'는 '술어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를 대상으로 보충하여주는 문장성분(㉗, 172쪽)'으로, ㉘에서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상황어'와 '규정어'는 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문법 용어인데, '상황어'는 '술어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정도나 양태를 나타내면서 술어의 뜻을 수식하여주는 문장성분(㉗, 173-174쪽)', '규정어'는 '문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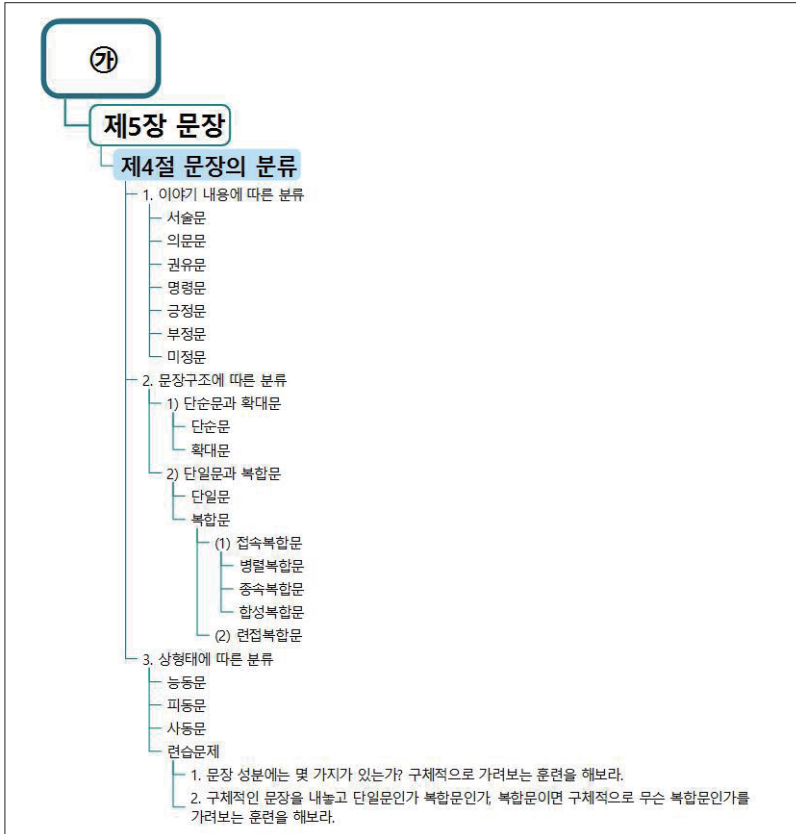
〈그림 2〉 ㉔의 3절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대상의 특징, 표식을 규정하거나 그 소속을 나타내는 문장성분(㉔, 174쪽)’으로 개념화 되고 있어 양태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문장성분’의 하위 유형인 ‘호칭어, 감동어, 접속어’는 ㉔의 ‘독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삽입어’는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되는 사실에 대한 평가, 태도, 근거 등 보충적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넣는 독립적 문장성분(㉔, 174쪽)’으로 ‘양태성’ 관련 있는 문장성분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㉔에서의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에서 ‘양

태성', 이야기 내용의 심리적계기, 진술성'이 주요한 문법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㉔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4절을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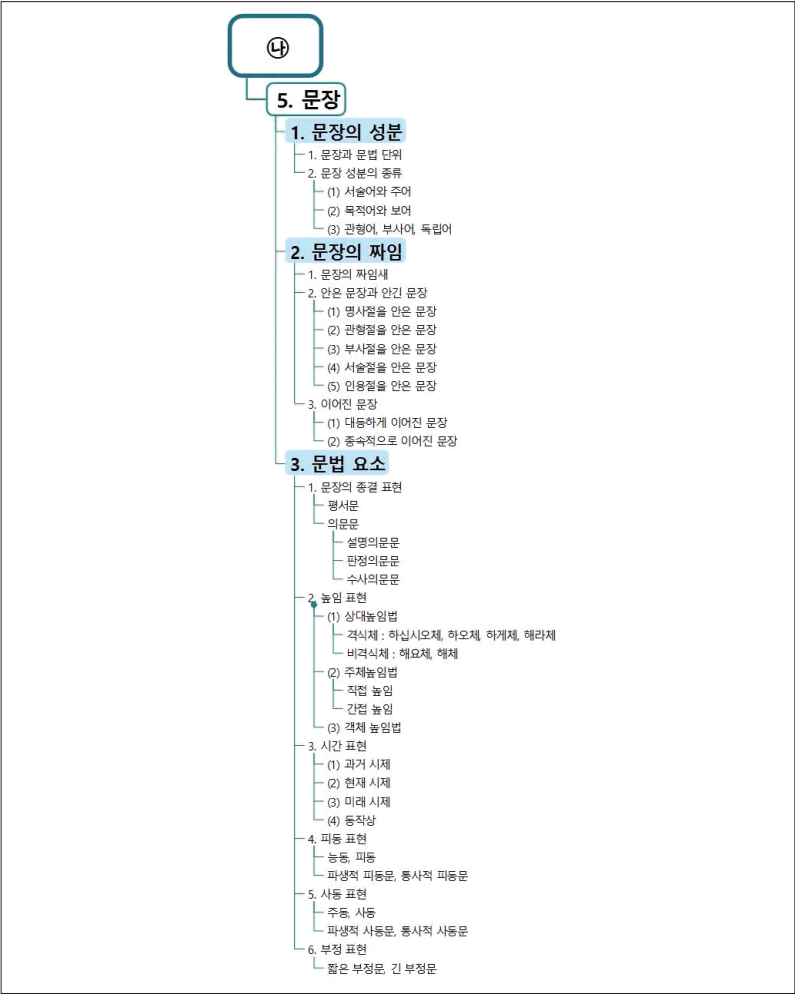


<그림 3> ㉔의 4절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그림 3>을 통해 우리는 ‘문장 분류’에서 ‘이야기 목적에 따라’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으로, ‘이야기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긍정문, 부정문, 미정문’으로, 문장 구조에 따라 ‘단일문, 복합문’으로, ‘상형태의 표현에 따라’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㉔의 경우 ‘2문장의 짜

임’에서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3문법요소’에서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 등의 관련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에 비해 문장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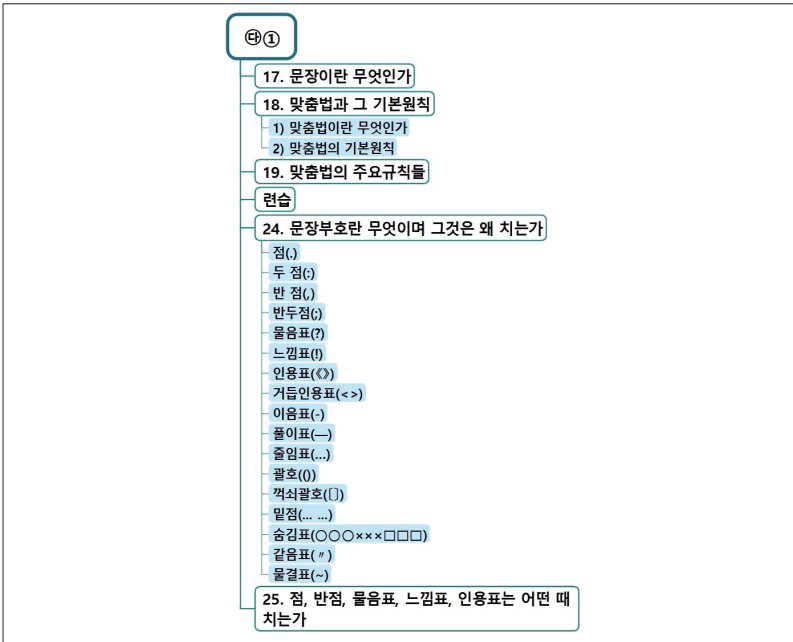
㉗, ㉘, ㉙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㉘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㉘의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

〈그림 4〉를 통해, 우리는 ㉔에서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으로 ‘문장 성분’ 아래 ‘주성분’으로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속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으로 ‘독립어’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짜임’ 아래 문장 구조에 따라 ‘단문, 복문’ 그리고 복문 아래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 유형 구분 아래 ‘안긴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어진 문장’의 하위 유형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법 요소’ 아래 ‘문장 종결에 따른 문장 유형 구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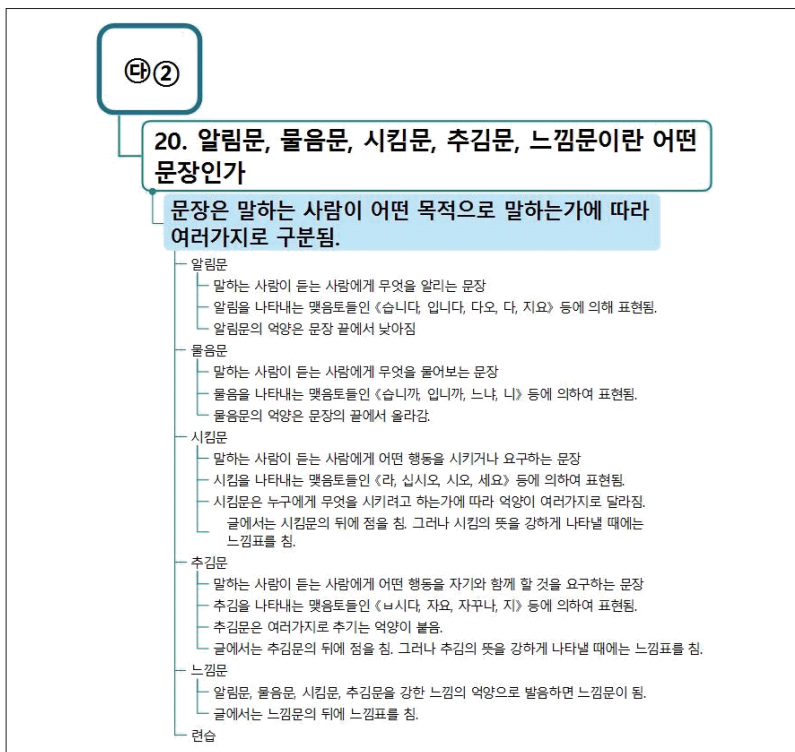
㉔, ㉔, ㉔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㉔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권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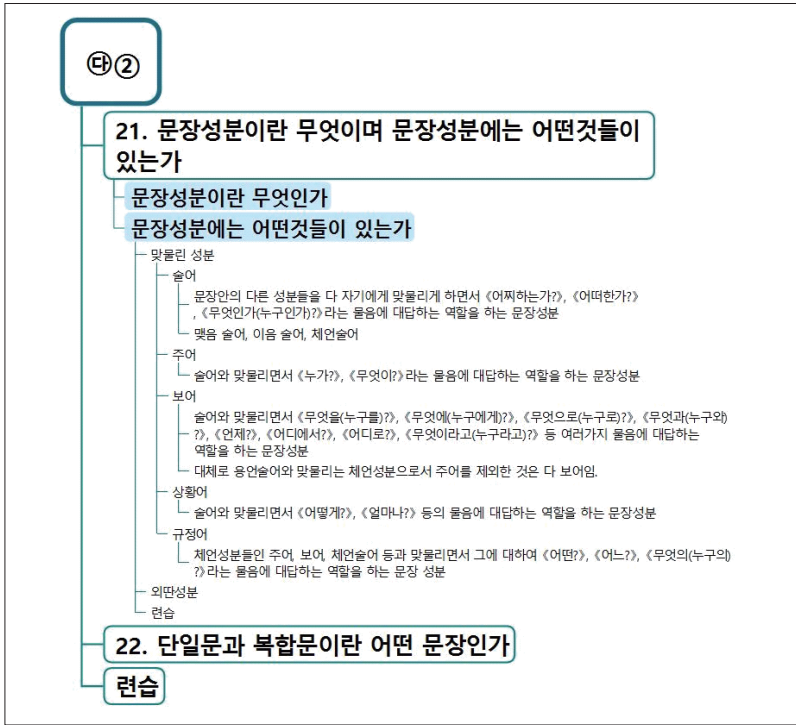
〈그림 5〉 ㉔①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그림 5〉를 통해, 우리는 ㉔①에서 ‘문장 개념, 맞춤법의 주요 규칙들, 문장 부호, 문장 부호 사용법’이 주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7문장이란 무엇인가’에서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문장이 되려면 끝맺음이 있는 하나의 가장 작은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하며,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맞물려야 함(㉔①, 43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맞물리도록 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토, 억양, 단어들의 차례’를 들고 있(㉔①, 43-44쪽)’어 ㉔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억양’이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㉔②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20절과 21-22절을 구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 ㉔②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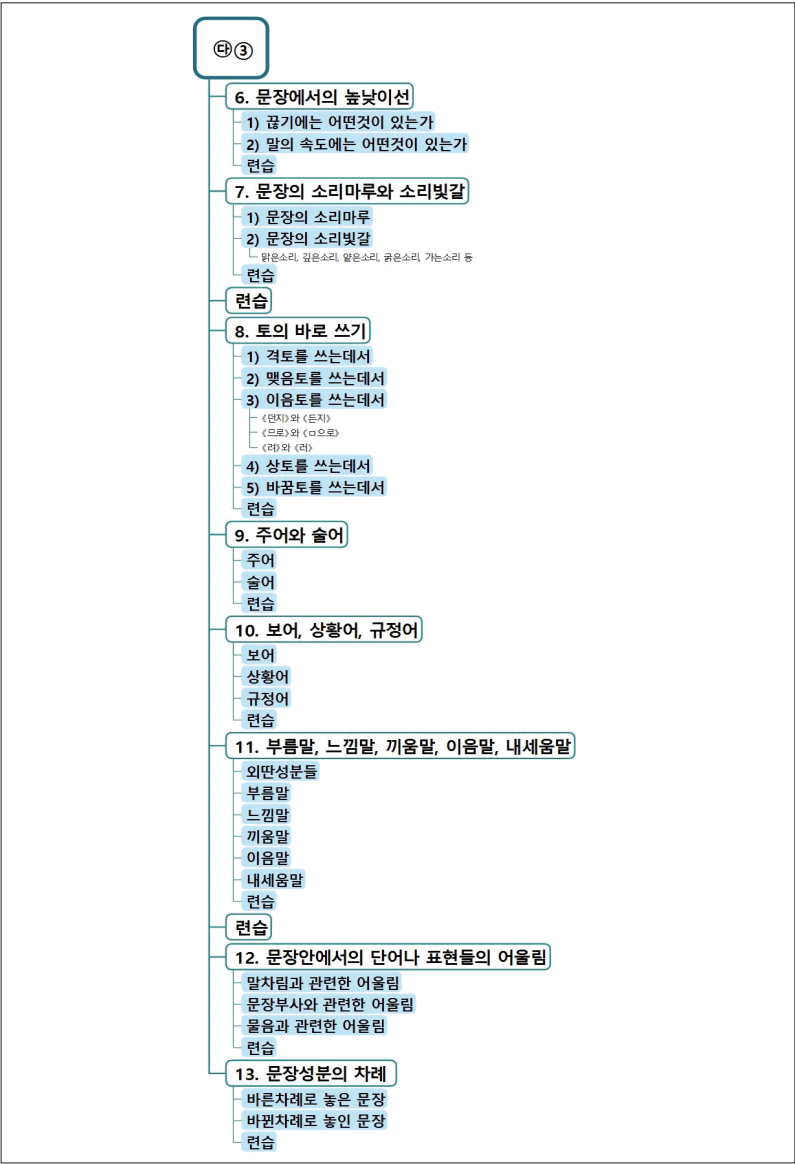


〈그림 7〉 ㉔②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2

〈그림 6〉을 통해, 우리는 ㉔②에서 ‘문장 유형’ 관련 교육 내용이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으로 하위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㉔①에서 문장 성립 요건으로 ‘억양’이 주요 개념으로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문장 하위 유형 구분에서 억양 관련 기술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7〉을 통해, 우리는 ㉔②에서 ‘문장성분, 문장구조에 따른 문장 하위 유형’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장성분’을 ‘맞물린 성분’과 ‘외판성분’으로 구분하여, ‘맞물린성분’에 ‘술어, 주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를 제시하고 있어, ㉔③에서 ‘상관적문장성분’의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 구분과 동일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㉔③에서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㉔③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그림 8〉을 통해, 우리는 ㉔③에서 ‘문장 억양, 조사의 사용, 문장성분 구분, 문장 안에서의 단어나 표현들의 어울림, 문장 성분 차례’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서의 높낮이선, 문장의 소리마루와 소리빛갈’에 대한 ‘문장 억양’ 관련 내용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는 단어 단위 문법 교육 내용으로만 다루고 문장 단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㉔의 양상과는 달리 문장 단위 교육 내용에서도 ‘토’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맞물린성분’을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으로 하위 구분하고 있어 ㉔에서의 ‘상관적문장성분’의 하위 구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판성분’으로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름말’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 ‘느낌말’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직접 나타내는 말’, ‘끼움말’은 ‘문장의 앞이나 가운데에 이야기되는 내용의 출처나 그에 대한 보충적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 넣는 말’, ‘이음말’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내세움말’은 ‘문장안의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말’ (㉔③, 26-28쪽)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㉔에서의 ‘독립적 문장성분’의 하위 유형인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 접속어’에 차례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㉔에서의 ‘독립적문장성분’ 중 ‘호칭어, 감동어, 접속어’와 ㉔③에서의 ‘외판성분’ 중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은 ㉔의 ‘문장성분’ 중 ‘독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세움말’은 ㉔, ㉔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연설에서의 화제어 혹은 주제어에 해당되는 양태 중심의 문장성분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㉔, ㉔에서의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에서는 ‘억양, 구어성’이 주요한 문법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V.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단위 교육 내용 특성 및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단위 교육 내용 특징으로 1) 구어 중심, 2) 의미 중심, 3) 양태 중심, 4) 문장 단위 중심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절 아래 이러한 특징을 상세 기술하면서 남북한어 문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추가 기술하는 방식¹⁾을 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어 중심

㉞에서는 구어 중심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기술이 첫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의 기본표식’에서 ‘문장의 기본표식은 진술성이며 전달의 억양’임을 기술하면서 문장 억양의 문제를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어보다는 구어 중심의 문장 단위 문법 기술이기에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장 하위 유형에서 ‘이야기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을 설정한 채 감탄문은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감탄문 설정 문제²⁾도 문말 억양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 1) 이 연구는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의 문법 기술 방식이 남북한어 문법과 어떠한 영향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재 분석 외에도 교육과정 개발자, 교재 집필자, 교과서 운용의 주체인 조선족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자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교재 분석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극복은 후일의 논의로 돌리고자 한다.
 - 2) 감탄문 설정 문제는 ‘감탄문 고유의 문말 어미가 존재하느냐, 억양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이러한 특성은 ㉔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㉔에서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문장이 되려면 끝맺음이 있는 하나의 가장 작은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하며,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맞물려야 함(㉔①, 43쪽)’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토, 억양, 단어들의 차례’를 들고 있(㉔①, 43-44쪽)어 ㉔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억양’이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구어 중심의 문법 기술이 특징적인 양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6>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장 성립 요건으로 ‘억양’이 주요 개념으로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문장 하위 유형 구분에서 억양 관련 기술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의미 중심

㉔에서는 의미 중심의 문장 단위 교육 내용 기술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단어결합’ 중 ‘종속적결합’에서 ‘주술적결합’은 ‘주술관계’, ‘보충적결합’은 ‘목적어관계, 보충어관계’, ‘접속적결합’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인데 반해, ‘상황적결합, 규정적결합’은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상황적결합’은 ‘주도어가 행동, 상태를 나타내고 의존어가 그것을 수식하여 주는 단어결합(㉔, 164쪽)’으로 형태적으로는 ‘부사어+서술어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의미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규정적 결합 역시 ‘주도어가 대상, 현상을 나타내고 의존어가 그 표식, 소속,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결합(㉔, 164쪽)’으로 ‘관형어+목적어, 관형어+주어, 부사어+주어 명사구, 부사어+목적어 명사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의미 중심으로 기술

나’ 등의 관점에 따라 감탄문을 설정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오현아·강효경(2017) 참조.

하고 있다.

또한 ‘문장 성분’에서 ㉔와는 달리 ‘목적어’를 설정하지 않고 ‘술어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를 대상적으로 보충하여주는 문장성분’(㉔, 172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㉔에서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㉔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㉔와 유사하게 ‘술어와 맞물리면서 ‘무엇을(누구를)?’, ‘무엇에(누구에게)?’, ‘무엇으로(누구로)?’, ‘무엇과(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이라고(누구라고)?’ 등 여러 가지 물음에 대답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성분’(㉔ ②, 53쪽)’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양태 중심

㉔의 세번째 특징은 양태 중심 기술인데, ‘문장의 기본표식’에서 ‘심리적인 계기’는 ‘문장을 특징짓는 양태성의 의해 표현’되며, ‘양태성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립장, 태도, 감정적뜻빛갈’로 ‘조선어에서 양태성은 주로 계칭, 식, 법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와 어울리어 나타남’(㉔, 155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법 교육 내용 체계를 통해 우리는 ㉔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장의 양태성이 ㉔에서는 주요한 문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상황어’와 ‘규정어’는 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문법 용어인데, ‘상황어’는 ‘술어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정도나 양태를 나타내면서 술어의 뜻을 수식하여주는 문장성분’(㉔, 173-174쪽), ‘규정어’는 ‘문장에서 대상의 특징, 표식을 규정하거나 그 소속을 나타내는 문장성분’(㉔, 174쪽)’으로 개념화 되고 있어 양태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적문장성분’의 하위 유형인 ‘호칭어, 감동어, 접속어’는 ㉔의

‘독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삽입어’는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되는 사실에 대한 평가, 태도, 근거 등 보충적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넣는 독립적 문장성분(㉑, 174쪽)’으로 ‘양태성’ 관련 있는 문장성분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㉑에서의 양태 중심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㉑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㉑와 유사하게 ㉑에서는 ‘외판성분’으로 ‘부름말, 느낌말, 끼움말, 이음말, 내세움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름말’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 ‘느낌말’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을 직접 나타내는 말’, ‘끼움말’은 ‘문장의 앞이나 가운데에 이야기되는 내용의 출처나 그에 대한 보충적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 넣는 말’, ‘이음말’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내세움말’은 ‘문장안의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말’(㉑③, 26-28쪽)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㉑에서의 ‘독립적 문장성분’의 하위 유형인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 접속어’에 차례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㉑에서의 ‘독립적문장성분’ 중 ‘호칭어, 감동어, 접속어’와 ㉑③에서의 ‘외판성분’ 중 ‘부름말, 느낌말, 이음말’은 ㉑의 ‘문장성분’ 중 ‘독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세움말’은 ㉑, ㉑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연설에서의 화제어 혹은 주제어에 해당되는 양태 중심의 문장성분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4. 문장 단위 중심

㉑의 네번째 특징은 문장 단위 중심 기술인데, ㉑에서는 ‘문장 성분’과는 별도로 ‘단어결합’의 개념을 구분해 단어 결합의 개념과 하위 유형을 다

루고 있다. 여기서 ‘단어결합’이란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문법적인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며 문장속에 들어가 문장의 구성단위로 되는(㉔, 155쪽)’ 개념으로, ‘문장 속에서 의미-문법적으로 상관적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어 또는 단어 결합(㉔, 166쪽)’인 ‘문장성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결합 관련 내용은 문장 단위 중심으로 단어 단위 교육 내용의 잠재적 교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㉔에서는 ‘문장성분’의 ‘술어’ 하위 유형에서 종결어미가 결합된 ‘종결술어’와 연결어미가 결합된 ‘접속술어’를 구분하고 있어, 어미 유형과 서술어 상관관계에 대한 단어 단위의 잠재적인 문법 교육 내용이 전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㉔에서는 ‘상형태의 표현에 따라’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㉔의 경우 ‘2문장의 짜임’에서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3문법요소’에서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 등의 관련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에 비해 문장 분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V. 나오며

본고에서는 조선어문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어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국어 문법의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유동적인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받았는가에 대해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문법 교과서 기

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사적 고찰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에 대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미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조심스레 한 걸음 떼어 보고자 한다.

- * 본 논문은 2017. 4. 27.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류은중·김광수(2008), 『조선족 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문법』, 연변교육출판사.
최준영·서제길·류병설(1996), 『고등중학교 국어문법』 1-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최준영·서제길·류병설(2001), 『고등중학교 국어문법』 1-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 논저

- 권순희(2014), 「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561-58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권재일(2006),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분류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한글』 274, 231-266, 한글학회.
김정선(2015), 「이해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8, 143-170, 국어교육학회.
배재훈(2012), 「사용능력 신장에 대한 연구: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45, 71-99, 한국어문교육학회.
오현아·강효경(2017), 「문장 유형 교육 내 감탄문 설정 문제 검토」, 『새국어교육』 110, 305-345, 한국국어교육학회.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2016),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7, 73-108, 국어국문학회.
왕문용·민현식(1999),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이관규(2016),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의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1(3), 155-183, 국어교육학회.
이광호(1995), 「체계: 새우리말 큰사전, 조선문화어 사전, 조선말 사전의 일러두기를 통하여」, 『목원어문학』 13, 69-85, 목원대 국어교육과.
최유숙 외(2015), 「통합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콘텐츠연구』 18, 396-426,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홍종선(1999), 「문법의 통일」,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3-3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홍종선(2009), 「국어 과목에서의 북한어 교육」, 『한어문교육』 21, 35-59, 한국어언어문학교육학회.

분단 상황에서 중간자적 언어 교과로서의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연구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오현아

이 논문에서는 조선어문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어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국어 문법의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문장 단위 교육 내용 특징으로 1) 구어 중심, 2) 의미 중심, 3) 양태 중심, 4) 문장 단위 중심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어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국어 문법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문법 교과서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사적 고찰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법교육, 조선어 교육, 문장 단위, 남북한어 문법

Korean Language Studies Grammar Effect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Chosun Language Textbooks as a High School Grammar Language Curriculum in the Intermediate Division Multilateral Context

—Centered on Sentence Unit Grammar Education Contents

Oh Hyeonah

In this paper, we try to grasp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Korean grammar in Korean grammar textbooks by comparing <grammar> textbooks as Chosun language selection textbooks and the textbooks of inter - Korean grammar.

For this purpose, the textbooks of Korean grammar and grammar texts of North and South Korea were analyz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re were 1) spoken language centered, 2) semantic centered, 3) modality centered, and 4) sentence unit centered.

However, in order to grasp the influence of the Korean grammar in the Korean language grammar textbook,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rivate study on how the grammar textbook technology has been mad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revious curriculum. We hope that this discussion can be activated.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Chosun language Education, Sentence Unit, Grammar Texts of North and South Korea